

‘코로나19 확산 차단’ 행정력 동원

예천, 1:1 전담 대응반 구성
선제적 예방·차단 고삐

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층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해 발열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도청신도시 확진자 발생에 따라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방역 인력을 투입해 신도시 중심상가 위주로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장애인시설 극락마을 중사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소자 및 종사자를 극락마을과 인근 경로당 6개소에 분산 배치하고, 경

계강화를 위해 매일 공무원 배치 및 외부 출입 통제, 모니터링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1:1 전담 대응반 71명(본청 43명, 읍·면 28명)을 구성하고, 대상자 발생 시 매일 2회 전화 모니터링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용 쓰레기봉투, 생활용품 및 방역용품 전달,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 교육 등 선제적 예방·차단에 고삐를 더욱 당기고 있다.

특히, 군민들이 상황에 불안해 하지 않도록 문자발송, 확진자 동선 안내, 홈페이지 게시, SNS 홍보 등 다양하게 정보 공유 및 홍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군위를 지역자율방재단, 관내 방역실시

군위를 지역자율방재단(단장 박학섭)에서는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3일 군위를 소재지내 200여개 공공기관, 식당, 다중집합소 등을 일제 방역소독 했다.

이날, 방재단은 동원가능한 10명의 자원봉사 대원들을 비상소집, 2개조로 편성해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개인 소유 동력살분무기(치파벨리) 4대를 동원, 방역작업을 실시 했으며, 소독약제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자부담으로 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봉사활동을 해줬다”는 칭송을 받았다.

봉사활동을 기획한 박학섭 자율방재단 단장은 “단원들이 당면 영농 등 개인적으로 바쁜 사정들이 있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자율방재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람되며, 이



번 방재활동이 감염병 차단에 작으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역활동에 함께 참가한 윤훈섭 군 위읍장은 “방재인력 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방재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서 고맙다. 철저한 예방활동과 개인 위생관리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

군위군, 생활권 주변 주택피해목 제거사업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생활권 주변에 위치해 태풍, 폭설 등 재해 시 위험요인이 있는 피해목을 제거하는 ‘생활권재해우려목(주택피해목)제거사업’을 실시했다.

군은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역주민 등 제때 나무를 제거하지 못한 주민들의 안전과 태풍 등 강우나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1월부터 전 읍면을 통해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 대상목

을 신청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목 340여본을 선정했다.

대상목은 대부분 수령 50년 이상의 거목들로 일반인들이 제거하기엔 어려운 수목들로 주택과 가까워 벌목 시 인접 건물이나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군은 벌목 전문가와 중장비를 동원해 1차로 116본을 제거 했으며, 부족한 예산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오는 4월 말까지 2차 제거 작업을 완료기로 했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

영주적십자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본격 돌입

대구 확진자 99명 3일간 나눠 입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지원물품 속속
자원봉사 희망 및 기부 행렬 이어져

영주적십자병원(병원장 윤여승)이 지난 1일 대구 확진자 33명에 대한 입원 치료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을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영주적십자병원은 의사 19명, 간호인력 78명을 투입해 3일까지 99명을 입원시키고, 의료인력 확보 상황에 따라 4층 병동을 신설, 환자 입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외래, 응급실 및 인공신장실 등 일반 진료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경북도, 대구광역시, 영주시 및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의료장비 및 주요 물품들이 지원

되는 등, 행정적 지원이 원활히 협조되고 있어 확진자 입원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의료진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지원할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 한편, 사회 각계 각층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건강음료 200박스, 영주인삼농협에서 10박스, 영주 승혜축산 돼지고기 100kg, 라이나 재단에서 비열균가운 270개 및 진료용 글러브252 700개,



선경산업에서 전신 및 손소독기 1대, 더욱에서 떡 70개, 두인씨엔에스 김종태님 방호복 100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 지구협의회에서 방진마스크 100개를 기부하는 등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물품은 전 부 전담병원 운영에 쓰이고 있다.

윤여승 영주적십자병원은 “중앙사

고수습본부 등 관계부처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주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과 확진자 확산 방지에 영주적십자병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다송 기자 ekthd4755@naver.com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나서

원도심 빈 점포 활용
공유 갤러리 조성

문경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지행)을 추진 중인 문화의 거리 빈 점포 건물주의 무상 임대와 주민협의체 역전 상점가 상인회의 지원으로 빈 점포를 활용한 공유 아트갤러리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도심 내 빈 점포를 예술 공간으로 활용,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문경시청 도시과, 일자리경제과,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갤러리 상가 주인, 점촌역전상점가 상인회

회장이 참석했다.

공유 갤러리는 문화의 거리(문경시 중앙6길 15 1층)에 위치해 지역 예술가의 신청을 받아 운영될 계획이며, 2~3주 기간 동안 작가들은 무상으로 예술 작품을 전시, 판매, 교류 공간으로 이용한다.

이번 협약은 건물주와 상인회 회장의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업 전 건물 임차료 인상 조짐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체결될 수 있었다. 이는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와 도시과의 공동 협업에 의한 최초 사례다.

이번 협약 후 빈 점포에 입주할 지역 예술인을 이달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소 일정은 조



정 될 것이다.

건물주가 무상으로 공유 공간을 제공한 사례는 전국 최초이며, 이 협약이

지역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

봉화군, 위생업소 재난취약시설

재산상 손해 보상 위한
의무보험 가입 독려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

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보험가입대상은 숙박업(20개소), 영업장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89개소)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다르며 100㎡ 음식점 기준 연간보험료는 2만 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화재·폭발·붕괴 손해까지 보상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식 종합민원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 가입뿐 아니라 보험만기(1년 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가입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다송 기자 ekthd4755@naver.com

星州 새로운 변화 힘찬 출발!

성주 미래 100년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성주역(驛) 유치에 위해 5만 군민과 20만 출향인의 힘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며, 반드시 역 유치를 성사시켜 성주 역사(歷史)에 큰 획을 그을 것입니다.



2020년도 성주군정은 대형SOC사업 확충으로 지역발전 기반을 공고히하고, 성주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타당성인증을 마친, 경제는 살아나고, 관광객이 넘쳐나는 가운데 모든 군민이 행복한 성주미래100년의 지도를 힘차게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삶 우리 군민의 희망입니다.